

## LS니꼬동제련, 칠레 광물사와 장기계약

# 10년간 100만t… “구리걱정 없다”

전기동·금 등 1조 규모 금속생산  
동광석 연간 10만t… 총 16만t 확보

LS니꼬동제련이 위험 부담 없이 장기간 광물을 공급받게 됐다.

LS니꼬동제련은 5일 울산롯데호텔에서 테크리소시즈와 100만t(톤)규모의 동광석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테크리소시즈는 동, 석탄, 아연, 에너지 개발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캐나다 기업이다. 2018년 약 14조원의 매출을 거둔 바 있다.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역대 최장기다. LS니꼬동제련은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칠레 케브리다 블랑카광산에서 나오는 순도를 높인 동광석(동정광)을 매년 10만톤씩 공급받기로 했다.

LS니꼬동제련은 공급받은 광물을 전기동과 금, 은 등 1조원 규모 금속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세계 제련업체가 중장기적으로 동광석 공급 부족 전망에 치열한 원료 확보 경쟁을 치르는 가운데 거둔 의미 있는 성과다.

LS니꼬동제련은 자원 개발 지분 투자 없이 한국 수출입은행 정책 지원을 활용해 이번 계약을 성공시켰다. 수출입은행이 광산에 자금을 지원하고 한



LS니꼬동제련은 테크리소시즈와 1조원대 동광석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테크리소시즈 앤드류 스톤커스 마케팅 담당 총책임자, 레알 폴리 비철 마케팅 부사장, 도석구 LS니꼬동제련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양환준 프로젝트금융 본부장, LS니꼬동제련 사업본부장 구본혁 부사장. /LS니꼬동제련

국기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조건이다. 일반적으로 제련기업이 투자나 지원을 담보로 하는 관례를 벗어난 성과다.

LS니꼬동제련이 광산에 투자하는 부담을 떠안지 않고도 고품질 원료를 장기간 확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생산한 금속은 전자와 전기, 자동차 등 산업 분야에 공급해 국가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해에도 페루의 미나 후스타 동 프로젝트에 연 6만톤 규모의 동정광을 공급받는 정책 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LS니꼬동제련은 이를 합쳐 매년 16만톤 동정광을 확보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보했다.

도석구 LS니꼬동제련 사장은 조인식에서 “테크리소시즈와 오랜 기간 최고의 파트너로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계약 성사를 위해 4억 달러를 투자해준 한국수출입은행에도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다.

테크리소시즈 앤드류 스톤커스 마케팅 담당 총책임자는 “LS니꼬동제련은 체질개선에 성공해 지속적으로 좋은 실적을 거두고, 미래 성장을 위해 제련소 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 첼로스퀘어, 글로벌 이커머스에 적용확대

(삼성SDS 물류 플랫폼)

‘첼로 테크페어 2019’ 개최  
日 라쿠텐, 라자다와 협력 확대



삼성SDS 김형태 물류사업부문장(부사장)이 오프닝 스피치를 하고 있다. /삼성SDS

삼성SDS는 5일 ‘첼로 테크페어 2019’에서 글로벌 이커머스 사업자와의 물류 협력 확대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의 물류 적용사례를 발표했다.

삼성SDS는 지난해 아마존에 이어 올해 일본 라쿠텐, 동남아시아 라자다와 협력을 확대하여 국내 기업이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진출 시 필요한 국가별 최적 배송사 선정과 수출 서류처리 등의 물류서비스를 첼로스퀘어를 통해 제공한다.

첼로스퀘어는 삼성SDS의 글로벌

템을 첼로스퀘어와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로 연계해 배송 상품명, 주문수량 등의 주문정보 입력과 지역별 최적 배송사 선정을 자동화하여 물류 업무를 효율화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삼성SDS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브라이틱스 AI가 내재된 첼로 플랫폼으로 항만 혼잡도를 분석해 선박 도착 예정일을 화주에게 제공함으로써 내륙 운송과 원활하게 연계 해주는 사례도 소개했다.

삼성SDS 김형태 물류사업부문장(부사장)은 “글로벌 이커머스 사업자와 다양한 협업 모델을 발굴하여 국내 기업이 해외 이커머스 시장을 쉽게 공략 할 수 있는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코쿼드 2.0’ 출시 기념행사 표준데이터 7만→10만개 확대

마련해야 했다.

LG CNS는 지난해 12월 위키백과 정보를 기반으로 AI 학습용 한국어 표준데이터 7만개가 탑재된 ‘코쿼드 1.0’을 제작해 AI 업계에 공개했다.

공개 후 AI 전문가들이 모인 국내 최대 오픈 커뮤니티인 텐서플로우코리아에서는 표준데이터 공개에 대한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유수 AI 기업들과 AI 협업 종사자 등 50여 개 팀이 코쿼드를 사용한 AI 개발

에 나섰다.

LG CNS는 5일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 국내 AI 전문가 300여 명을 초청해 AI 커뮤니티 행사 ‘AI 테크톡 for NLU’를 열어 ‘코쿼드 2.0’ 출시를 발표했다.

코쿼드 2.0은 코쿼드 1.0 대비 한국어 표준데이터를 7만개에서 10만개로 확대하고, 단답형에서 장문의 답변이 가능한 AI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강화한 버전이다.

/구서윤 기자

## LG CNS, AI 한국어 표준데이터 무료개방

LG CNS는 인공지능(AI)의 자연어 이해를 위한 한국어 표준데이터 10만여 개를 제작해 국내 AI 업계에 무료로 개방한다고 5일 밝혔다.

언어 AI 개발을 위해서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교과서와 유사한 개념인 AI 학습용 표준데이터가 필요하다.

해외는 미 스텐포드대학,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제작한 영문 표준데이터가 존재해 AI 개발에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는 한국어 표준데이터가 없어 영문을 번역하거나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 두산밥콕, 英 원전건설 설비 2000억 공급

‘힝클리 포인트 C’ 공급계약 체결

영국이 20여년 만에 건설하는 원전에 두산중공업의 자회사 두산밥콕이 2000억 원 규모의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신규 원전 시장 진출 교두보 역할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중공업의 영국 자회사인 두산밥콕은 영국 현지에서 ‘힝클리 포인트 C’ 원전 프로젝트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빌주처는 힘클리 포인트 C 원전 주사업자인 프랑스 전력공사(EDF) 산하의 ‘NNB GenCo’다.

두산밥콕은 현지 기업인 알트라드사 등 4개 회사와 조인트벤처를 이뤄 기계·전기계·공조 설비 등을 공동 수주했다. 두산밥콕의 수주 금액은 약 2000억 원 규모다.

힝클리 포인트 C 프로젝트는 영국에서 20여년 만에 새로 짓는 원자력

발전소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총 3200MW 규모로 영국 남서부 서머셋주에 건설 중이며, 2025년 완공될 예정이다.

두산밥콕은 이번 원전 건설 재개 이전 1995년에 건설된 ‘사이즈웰 B’ 프로젝트에 증기발생기를 공급하는 등 영국이 세계 최초의 원전을 가동한 1956년부터 핵심설비 제조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최근엔 영국 셀라필드 사와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 공급 장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목진원 두산중공업 파워서비스BG 장은 “오랜만에 재개된 영국 원전 시장에 참가하면서 글로벌 신규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며 “현재 영국에 총 15기, 약 8.9GW의 원전이 운영되는데 이에 대한 서비스 사업 공략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미얀마 미곡종합처리장 2공장. /연합뉴스

## 미얀마에 8.6만t ‘미곡종합처리장’ 준공

포스코인터, 연 10만t 곡물조달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얀마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2공장을 준공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애야와디주 곡창지대와 양곤 수출항을 잇는 땅에 수로변 물류거점에 위치한 연산량 8만6000톤(t) 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을 완공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인수한 연 생산량 1만5000톤 규모의 미곡종합처리장을 험하면 미얀마 내에서 총 10만톤 규모의 곡물 조달체계를 갖추게 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를 미곡종합처리장을 활용해 양질의 현지 원료곡을 확보하고 가공 품질을 개선해 중국, 중

동, 유럽 등지로 판매할 계획이다.

미곡종합처리장은 벼를 수확한 후 건조, 저장, 도정, 검사, 판매를 일괄 처리하는 시설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미얀마 시장 개방 초기부터 원료 수급과 건설부지 확보 등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을 추진해왔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미얀마는 개간되지 않은 녹지가 많고 비료 사용량이 적어 생산량 증가 여력이 높으며 미얀마 정부에서도 농업·농촌 중심의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j964@

##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취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안현호 사장(사진)이 공식 취임했다. 안 사장이 해외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향후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KAI는 5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안현호 대표자를 제7대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오늘부터 3년간이다.

지난달 21일 KAI 이사후보 추천위원회는 안 사장이 산업 육성정책에 정통하고 해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을 들어 국내 항공우주산업을 이끌어 갈 적임자로 추천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 안 사장은 “미래 먹거리 발굴로 KAI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며 “수출 확대와 신사업 개척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KA I는 국산 항공기 마케팅 활동 강화와 원가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핵심기술의 R&D 확대 등으로 신사업을 발굴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항공우주산업 전체를 성장시키기 위해 고객, 협력사 등과 함께 상생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방향도 제시했다.

KAI 구성원에게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구성원 모두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자”고 독려했다. /양성운 기자

